

# 초·중·고 '교실 도박' 위협수위

## 화투·포커 성행 ... 판돈은 휴대전화 '알'·인터넷 '도토리'

### “온라인 게임 많이해 도박 거부감 없어”

회사원 김모(47)씨는 최근 중학교 2학년 딸(14·광주 U중)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학교 성적이 상위권으로 공부만 할 줄 알았던 딸이 나그넷이 화투도박인 속칭 '섯다'를 하는 방식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딸은 “친구들끼리 교실 안에서 돈을 걸고 화투나 포커를 자주 친다”며 “돈이 없는 친구들은 외상으로 도박을 한 뒤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해 돈을 갚는다”고 말했다.

화투와 포커를 이용한 도박이 초·중·고교 내까지 파고들었다. 인터넷을 이용, 화투와 포커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이전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

에 화투·포커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판돈은 현금 외에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드로 하는 '원(One 카드)'과 화투쪽을 이용한 '섯다' '도리지고갱' 등이다. 수업 중에 열자리에 앉은 짝과 돌이서 물대 할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엔 4~5명이 함께하기도 한다.

교내 도박이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휴대전화 요금에 많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크다. 지난 7일 광주 S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섯다'를 하다 한 학생이 숨진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문자메

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알'이나 인터넷 '도토리'(10개당 1천원)가 판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C중학교 2학년 정모(14)군은 “심심풀이로 '섯다' 게임을 많이 하지만, 최근엔 판돈이 5만~6만원까지 올라가는 등 판이 너무 커졌다”면서 “돈이 없는 예들은 외상을 한 뒤 '도토리'로 대신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진영(27)씨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고스톱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상태”라며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이 요금 명세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전교조 “도박 사망 사죄”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 S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화투도박을 벌이다 시비 끝에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11일 사죄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궁극적 원인은 정상화되지 못한 교육현실에 있다”며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을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잘못된 교육현실 속에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 데 좌절감과 죄책감을 떨칠 수 없다”며 “교육당국도 효율과 경쟁을 앞세운 입시경쟁에 아이들을 내모는 현 교육에 대한 일대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필기자 camus@



**광주 도심에 등장한 자선냄비**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 첫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에 길을 가던 엄마와 어린 자녀가 돈을 넣고 있다. 광주 구세군 교회는 오는 24일까지 우체국과 구 런던역국 사거리 앞 등 두 곳에서 모금활동을 벌인다. 모금된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심장병·백혈병 환자 치료비, 실직자·노숙자 지원 등에 쓰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나원침 (7381) 김장두



다들 권하하네!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의료대

KCC광호, 시스텔광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의료대

실리콘·방수공·철축공·타이브

### 주식 투자 '빚더미' 60대 노동자 자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밤 11시50분께 C대 의과대학 파트타임 직원인 김모(64)씨가 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들(26)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김씨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 최근 주식 투자로 빚을 졌는데, 병급 일부가 압류돼 갚을 능력이 없고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다. 아

바가 집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1천200여 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폭락하면서 대부분 채무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으며, 월 급여 80여만원 중 일부가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장성에 충기 버렸다”

#### 경찰 첩보 입수 수색

강화 총기 탈취범이 '전남 장성군에 충기를 버렸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께 부산시 한 우체국에서 우체부가 편지 분류작업을 하던 중 길에 '총기 탈취범'이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봉투 안에는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 충기를 버렸다'고 적힌 종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전경 3중대를 현장에 투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총기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의 장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위를 조사해야겠지만 일단 탈취범이 보낸 편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떡볶이에 삶은 달걀 빼라”

#### 전대후문 포장마차 상인 담합 깬 동료에 행패

전남대 후문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상인 7명은 지난 1일 '신사 협정'을 맺었다.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떡볶이에 삶은 달걀을 넣지 말자'는 것이었다. 최근 계산 한 판(30개) 가격이 3천100원에서 3천600원으로 500원(16.2%)이나 올랐기 때문. 하루에 서너 판의 계란을 삶아 일

일이 껴질 것을 걱정하는 동료였다.

하지만 최근 이모(여·53·광주시 북구 중흥동)씨가 반대하고 나섰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떡볶이에 삶은 달걀을 빼면 그나마 찾아 손님 발길이 끊어질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담합이 깨질 것을 눈치챈 김모

(49·광주시 북구 우산동)씨가 지난 10일 이씨 포장마차를 찾았다. '전대 후문 포장마차 대표'를 자칭하는 김씨는 이씨에게 “x×x야, 너 장사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며 욕설을 하고 집기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경찰에서 “혼자 달걀 넣은 떡볶이를 팔면 다른 포장마차에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씨가 이미 정한 약속을 깨려고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예언가 행세 역대 사기 30대 女 징역 10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1일 “가정의 역운을 파헤려며 제사를 지내거나 정성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거액을 쫓겨간 사기(사기)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신도 신모(여·3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다른 신도들과 짜고 2005년 5월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모(여·41)씨 집에서 진씨에게 “조상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해 집안에 역운이 끼었다”고 속인 뒤 이를 믿은 진씨로부터 현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순천시 주암면서

멧돼지 사냥을 나간 50대가 멧돼지 때에 들이받혀 숨졌다.

11일 오후 2시50분께 순천시 주암면 대구리 상어마을 뒤 '까치봉'(해발 450m) 정상 부근에서 김모(59·서울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쓰고 있던 모자는 찢어진 상태로 육식 동물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멧돼지 발자국 수백여 개와 땅을 파헤쳐 영역표시를 한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주변 상황과 무리를 지어 한길로만 다니는 멧돼지의 습성으로 볼 때 길을 잃은 김씨가 멧돼지 때의 공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5km가량 떨어진 곡성군 석곡면 구북리 '함동산'에서 동료 임모(58)씨 등 2명과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 날이 저물었지만 '멧돼지 발자국을 발견했다'며 혼자 추격에 나선 뒤 실종됐었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취업사기 60대 집유 2년**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중복 판사는 11일 보훈병원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3천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영재 전 우회 지회장 고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채 받으러 왔다” 자매 성추행

○20대 후반의 과한이 “사채를 쓰고 도망간 여대생을 찾고 있다”며 자매만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 성추행을 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11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과한이 몰래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J씨(24) 자매를 위협, J씨를 성추행한 뒤 달아났다.

○마스크를 쓴 과한은 두 자매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방에서 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의 몸을 더듬었다고.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라 등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대한민국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태양, 바다, 제주도-한라산 등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정이 넘치는 제주. 제주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과,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행사 】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 행사,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 행사,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 행사, 겨울 한라산 탐방 시은 행사.



UNESCO 세계자연유산 제주 한라산 탐방 시은 행사